

‘스피드’는 KIA 신무기

절벽 마운드 불구 빈약한 득점력 빠른발로 승부



신종길

종길은 을 시즌에도 KIA를 대표하는 기동력의 소유자로 꼽힌다.

시즌 초반 타격난조로 출전 기회가 줄어들면서 아직 10개의 도루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11일 현재 김선빈(11개)에 이어 팀 내 도루 2위(8개)를 기록하고 있다. 9번의 도루에서 8차례 베이스를 훔치며 도루 성공률은 88.9%에 이르고 있다. 스피드와 주루 센스까지 겸비해 KIA의 확실한 득점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윤정우와 임한용도 이구동성으로 신종길의 스피드와 주루 센스에 최고점을 주

신종길 타격·주루 종행무진속

윤정우·임한용 주전경쟁 가세

고 있다.

신종길은 “시즌 초반 감기몸살을 심하게 앓으면서 타격 벨류스가 무너져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타격이 안 좋다보니 주루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무조건 훔쳐 들어오자는 생각으로 뛰고 있다”고 밝혔다.

윤정우도 빠른 발이 돌보이는 대표 신인. 시범경기 기간 놀라운 기동력을 과시하며 개막전 엔트리에 합류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희 부족으로 제 기량을 마음껏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188cm의 장신을 활용한 통큰 질주가 장점이다.

신종길과 윤정우가 시즌 전 이미 스피드 겐성을 마쳤다면 임한용은 예상치 못했던 기동력으로 기동군단에 명함을 내민 케이스다.

신종길은 지난해 빠른발과 재치있는 타격으로 KIA 팬들에게 생소한 이름이었던 임한용은 승부근성과 빠른 발로 관중석을 환호시키며 외야경쟁에 뛰어들



윤정우

었다.

빠른 발을 가진 외야수들이 경합을 벌이게 되면서 KIA 외야의 경쟁구도가 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뛰는 애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KIA는 지난해 프로야구 사상 첫 팀 3500도루를 돌파했지만 2009년 전체 5위 그리고 2010시즌 8개 구단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신바람 질주가 KIA의 순위 싸움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세 선수의 다리에 팬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승엽 이어 박찬호도 2군 강등 ‘수모’

최근 승수를 쌓지 못해 애를 태우던 박찬호(38·오릭스 버펄로스)가 끝내 1군 출전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찬호 소속팀인 오릭스는 12일 소프트뱅크 호크스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찬호의 1군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박찬호는 이에 따라 열흘 동안 1군에 복귀할 수 없어 최소한 한두 차례 선발 로테이션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는 을 시즌 5경기에 선발로 마운드에 올라 평균자책점 4.13

에 1승4패를 기록했다. 박찬호는 전날 후쿠오카 야후드에서 벌어진 소프트뱅크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6이닝 동안 안타 7개와 볼넷 1개를 내주고 4실점하면서 패전투수가 됐다. 삼진을 1개밖에 잡지 못했다.

박찬호는 지난달 15일 라쿠텐 골든이글스와의 경기에서 6과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을 거쳐 데뷔전을 헐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기록)로 끊었으나 패전투수가 됐다. 그는 이어 22일 세이부와의 경기에서 70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첫 승리를 거둬 상승세를 타는 듯했다. 하지만 29일 라쿠텐과의 경기, 이달 5일 니혼햄 파이터스와의 경기, 전날 소프트뱅크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내리 3연패를 당했다.

이승엽(35·오릭스)이 2군으로 내려간 데다 박찬호까지 1군에서 빠지면서 동반 패배를 기록했던 한국 팬들은 적지 않게 실망하게 됐다.

/연합뉴스

박태환·정다래

국가대표 선발

상하이 세계수영선수권

박태환(단국대)과 정다래(서울시청)가 2011 상하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한국 국가대표로 꼽혔다.

대한수영연맹은 오는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14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는 경영 1명,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2명, 다이빙 4명 등 25명이다.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2회 연속 3관왕을 차지하며 부활을 알린 박태환은 호주 전지훈련 중이어서 대표선발전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이번 세계 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에 출전해 정상에 도전한다.

특히 주 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 2007년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이달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태환은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결승에도 오르지 못하며 체면을 구겨 이번에 정상 탈환 목표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평영 200m에서 깜짝 금메달을 딴다. 정다래는 이번 상하이 대회에서 같은 종목에 출전해 8명이 겨루는 결승 진출을 노린다.

/연합뉴스



12일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1리운드 18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는 김효주. /연합뉴스

‘여고 1년생’ 김효주 단독 선두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 1R

골프 국가대표인 김효주(16·대원외고)가 대영배 제25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5억원) 첫날 경기에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지난해 국가대표로 발탁된 김효주는 12일 경북 경주의 블루원 보문 골프장(파72·6427 야드)에서 열린 대회 1리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쓸어담아 7언더파 65타를 적어냈다.

고교 1학년인 김효주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었던 배경은(26·볼빅)을 2타 차 2위(5언더파 67타)로 밀어내

고리더보드 맨 웃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김효주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돼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고 프로대회에도 여러 차례 출전해 쟁쟁한 실력을 뽐냈다.

김효주는 넓지만 굴곡이 심한 대회 그린을 정교하고 아이언샷으로 가볍게 공략해 나갔다. 전반에만 4개의 버디를 잡은 김효주는 11번홀(파5)에서 15m를 넘기고 친 어프로 치장을 그대로 훔쳐 넣은 등 후반에도 3타를 줄였다. 김효주의 이날 스코어는 2006년 신지애(23·미래에셋), 2009년 이보미(23·하이마트)가 이 대회에서 세웠던 18홀 최저타 기록과 같은 것이다.

/연합뉴스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

정관장 금호 운천로점 개업

개업일자: 2011년 4월 29일

위치: 금호지구 CBS와 운천저수지 사이

주소: 서구 쌍촌동 1242-4번지

☎ 062)371-2303